

광주 최완영 “끝임없이 연습…12년 만의 우승에 행복”

‘국토 정중앙배 당구대회’ 3쿠션 우승…고향 양구서 우승 의미 깊어
“‘진도군청’ 김행직·‘세계 1위’ 야스퍼스와 맞대결 승리 가슴 벅차”

“실전 위주로 치열하게 연습했던 시간들이 만든 값진 결과물입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 청춘 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국토 정중앙배 2025 전국당구 대회’ 남자 3쿠션 결승에서 김행직(진도군청)을 50-48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최완영(41·광주 당구연맹)의 말이다.

당구를 접고 회사원의 삶을 살았던 그는 당구 선수로 복귀한 지 12년 만에 고향 양구에서 전국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1984년 양구에서 태어나 정선에서 자란 그는 10살 때 경기도 평택으로 이사했다. 20여 년간 당구장을 운영한 부모님 덕에 당구에 대해 보고 들은 건 많았다. 부모님 당구장에서 처음 큐대를 잡은 그는 1999년 포켓볼 선수 등록을 하며 본격적인 당구 선수의 길을 걸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좁저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쑥을 피우던 그를 본 부모님은 서울 한국당구 아카데미에 입학시켰다. 평택과 서울 강남구를 왕복 3시간 오가던 최완영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전국 포켓볼 일반부에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2007년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선수 생활을 접고 회사원의 삶을 선택했다. 직업이었던 당구는 동호회에 가입하며 취미로 즐겼다.

그의 당구 인생에 불씨가 다시 지펴진 것은 2013년 정주의 한 동네 당구장에서였다. 당구를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 기업 파이프앤스믹스의 오성규 대표와 최완영은 그날 같은 당구장에서 우연히 만났다.

최완영이 당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오 대표는 당구선수로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오 대표의 후원까지 이어지면서 최완영은 선수 생활에 재시동을 걸게 됐다. 과거 포켓볼 선수였던 그는 3쿠션으로 종목을 전환했다.

전국 어디를 다녀도 광주 음식이 제일 맛있다는 최완영은 2년 전 광주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름 3쿠션 결승에 오른 최완영을 눈여겨 본 광주 당구연맹이 스카우트했고 2023년 1월 광주로 이적했다.

이번 전국당구대회 우승을 두고 최완영은 “연습량을 많이 늘려서 자신있었다”고 웃어 보였다.

연습장을 찾은 회원들을 상대로 경기를 치르며 출전한 듯 매 순간 진지하게 임했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에 매진했다.

그는 대회 현장에서 연습은 하지 않는다. 평소 다진 실력을 기반으로 대회를 치른다는 것이 그의 신조이기 때문. 대신 컨디션 관리에 집중한다.

최완영은 “(다양한 지역으로) 시합을 다니다 보면 잠자리가 바뀌다 보니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날씨도 유독 좋았고, 잠도 잘 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2017 포르투3쿠션월드컵’ 8강에서 패했던 쓰린 기억이 있는 김행직과의 이번 대결은 더욱 짜릿했다. 그는 “김행직과 같은 국내 탑 랭커, 세계 랭킹 1



최완영이 강원도 양구 청춘 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국토 정중앙배 2025 전국 당구 대회’ 남자 3쿠션 결승에서 큐를 잡고 있다.

〈광주당구연맹 제공〉

위 야스퍼스와 맞대결을 펼쳐 승리를 거뒀을 때 가슴이 벅찬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최완영은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운동 선수로서의 삶을 원한다면 단순히 ‘열심히’ 정도에

그쳐선 안된다. 열심히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말 그 스포츠를 좋아하고, 직업으로 삼고 싶으면 ‘미쳐야 한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더했다.

그는 “우승을 하고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당구 선수로 살아가는 것”이라며 “올해 10월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우승 기운 뽐뽐’ 김효주, 기세 몰아 생애 첫 ‘매치 퀸’ 도전

LPGA 투어 매치플레이 개막
양희영·안나린·윤이나 등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매치플레이 대회가 2일(현지시간) 막을 올린다.

LPGA 투어 2025시즌 유일한 매치플레이 대회인 T모바일 매치플레이(총상금 200만 달러)는 2일부터 5일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새도 크리크 골프코스(파72·6765야드)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는 64명이 출전해 1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다. 각 조 1위가 16강에 올라 이후로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가 우승했으며, 한국 선수로는 김세영과 안나린이 4강까지 진출했으나 결승에는 오르지 못했다.

올해 대회에는 3월 31일 끝난 포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효주를 비롯해 고진영, 안나린, 양희영, 김아람, 윤이나, 이미향, 김세영, 임진희, 유해란, 최혜진, 이소미 등 한국 선수 12명이 우승에도 도전한다.

2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김효주는 베일리 타디

(미국), 마야 스타르크(스웨덴), 나나 마센(덴마크)과 한 조로 뒤흔었다.

고진영은 브룩 헨더슨(캐나다)과 조별리그에서 맞대결하고, 지난해 4강에 오른 안나린은 시부노 히나코, 사소 유카 등 일본 선수 2명과 같은 조가 됐다.

양희영과 김아람, 신지은은 교포 선수인 그레이스 김(호주)과 같은 조에 편성돼 치열한 16강 진출 경쟁을 벌인다.

윤이나는 이미향, 로런 코글린, 루시 리(이상 미국)와 함께 조별리그를 벌인다.

최혜진과 지노 티파콘(태국), 대니엘 강(미국), 가비 로페스(멕시코)가 한 조가 된 2조도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올해 앞서 열린 LPGA 투어 6개 대회에서 모두 아시아 국적 또는 아시아계 선수들이 우승한 결과가 이번 대회에도 이어질지도 궁금하다.

올해 LPGA 투어에서는 김아람, 노예림(미국), 에인절 인(미국), 리디아 고(뉴질랜드), 다케다 리오(일본), 김효주가 차례로 우승했다. 인은 중국계 미국인이고, 노예림과 리디아고는 우리나라 교포 선수들이다.



김효주

전남도청 우수팀 장민규, 태극권 전능 국가대표 선발

‘회장배 우수 선수권’ 태극권 2위

장민규(33·전남도청)가 우수의 투로 종목인 태극권 전능에서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최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끝난 ‘제37회 회장배 전국 우수 선수권 대회’에서 장민규가 주종목인 태극권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2025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진행됐다.

장민규는 주종목인 태극권에서 9.70점, 태극검에서 9.69점 등 총점 19.39점을 획득하며 2위에 올랐다.

투로 종목 국가대표는 장권, 남권, 태극권 전능 1위 3명과 2위 3명 중 총점의 평균점수가 높은 2명 등 총 5명이다.

장민규는 2023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위를 차지하고도, 총점 평균점수에서 밀리면서 아쉽게 태

극 마크를 달지 못하기도 했었다.

장보근 전남우수협회 전무는 “장민규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몇년째 아쉽게 떨어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전남에 애정이 많고 중국 선수 수준의 난이도를 구사할만큼 실력있는 선수”라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기량을 펼쳐 메달을 꼭 획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황유민, KLPGA ‘필드퀸’ 노린다

파워랭킹 1위…내일 개막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우승 도전

윤이나가 미국으로 떠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무대에서 올해 새로운 ‘여왕’으로 유력한 선수는 3년 차 황유민이다.

황유민은 최근 KLPGA 투어 공식 기록 파트너 CNPS가 지난해 선수들의 경기력 데이터를 분석해 순위를 매긴 KLPGA 투어 파워랭킹에서 1위에 올랐다.

장타력과 아이언샷, 쇼트게임, 퍼팅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상위권에 올랐다.

경기력뿐 아니라 폭발적인 장타를 앞세워 사뭇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반전 매력으로 대중적 인기마저 높다.

황유민은 KLPGA 투어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춘 셈이다.

황유민은 오는 3일부터 부산 동래 베네스트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에 출전한다.

KLPGA 투어는 지난해 태국에서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으로 이번 시즌을 개막했으며,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은 국내 개막전이다.

황유민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둬 스타 탄생을 알렸다. 이번에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황유민은 지난 3월 대만 여자프로골프 폭스콘 TL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데 이어 이벤트 대회인 신비 동물원·디오션컵 골프 구단 대항전 3연패를 이루는 등 예열을 마쳤다.

다만 대회 장소가 작년 제주도 테디밸리 골프&리조트에서 부산 동래 베네스트 CC로 옮긴 게 변수라던 변수다.

동래 베네스트 CC에서 KLPGA 투어 대회가 열리는 것은 1983년 부산오픈 이후 42년 만이다. 현역 선수들에게는 낯선 코스라는 뜻이다.

2016년 이벤트 대회인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이 치러진 적이 있다. 당시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 가운데 이정민, 장수연, 김지현 3명이 올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잔디 품종인 고려지에 양잔디인 라이 그래스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조성된 페어웨이드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전망이다.

황유민은 “전지훈련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니 좋은 성과가 따라오고 있어서 뿌듯하다”면서 “아직 코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컨디션과 샷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황마다 최선을 다해 즐기면서 플레이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나란히 다승왕(3승)에 올랐던 박현경, 박지영, 배소현, 마다숨도 올해는 단독 다승왕을 향한 첫 우승을 노리고 출전한다.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KLPGA 투어 판도를 흔들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박보경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 출전자 명단에는 KLPGA 투어 통산 20승을 포함해 프로 통산 65승을 올린 신지애가 포함됐다. 작년 이 대회에 이어 1년 만의 국내 대회 나들이다.

최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통산 상금 1위에 오르는 이정표를 세운 신지애는 “모든 선수가 우승을 목표로 하듯 나 역시 목표는 우승”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즐거움

문화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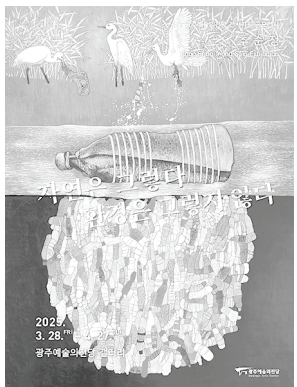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기획공연 포커스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

일시 : 2025-04-17(목)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 : 추순정 개인전

일시 : 2025-3-28(금)~2025-4-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